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실천 공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문을 연 '순환실험실 한걸음 가게'는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물건의 '순환'에 관심이 많은 공간이다.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과 공구를 대여할 수 있는 '장비도서관' (오른쪽) (한걸음 가게 제공)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순환실험실 한걸음 가게' (이하 한걸음 가게·동구 충장로 45-2 2층)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걸음 가게 여는 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가지고 온 의류를 교환하고,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입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하 노래가 이어지고, 한걸음 가게가 꾸미는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동구청 행사에서 사용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작은 손가방은 이 공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듯했다.

공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물건을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순환'에 관심이 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는 시민실천공간을 꿈꾼다. 한걸음 가게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자원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하는 공간 '우리동네 회수센터'에서는 종이팩, 투명 유리병, 플라스틱 병뚜껑, 건전지, 전선류 등을 회수한다. 제로웨이스트숍에서는 칫솔, 비누, 숟가락, 식물 수세미, 실리콘 파우치, 접이식 용기 등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닌, 다회용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구연산 등 세제와 작두공, 우영, 가루 커피 등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무게를 달아 가져갈 수 있다.

다양한 공구를 갖춘 '장비도서관'도 눈길을 끈다. 조선이 공대와 함께 조성한 공간으로 드릴, 망치, 자전거 펌프 수리 용품 등 집에 갖춰 두기 어려운 다양한 장비를 빌려갈 수 있다. 수선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재봉틀도 놓여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정용 미싱을 갖춰두고 있

광주 충장로 '순환실험실 한걸음 가게' 제로 웨이스트 숍·장비도서관 등 눈길 뚫어 운영... 워크숍·수다회 등도 진행

으며 공업용 미싱의 기부나 장기대여를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 기구취취기 생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름이 될 책을 모아둔 '거름 책장'도 눈길을 끈다.

지역경제해결 플랫폼과 진행한 한걸음 가게는 지난 2020년 10월 송정 마을 카페 이공에서 45일간 팝업 형태로 운영됐었다. 당초 공공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여의지 않아 이곳에서 출발을 알렸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제로웨이스트숍이 광주에 처음 생긴 셈이라 인기가 높아 2000여명이 다녀갔고 관련 워크숍도 80회 이상 진행했다. 이후 이공이 운영을 이어받으며 '1회 용품 없는 가게'로 이름을 알렸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대여 해주며 세제와 화장품도 조금씩 나눠서 판매했다. 일부러 '배움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걸음 가게 김지현 대표는 광주시 동구청이 운영하는 청년년집 프로젝트에 선정돼 충장로에 '실험공간'을 열었고, 책상 등 비품 역시 80%를 기부와 나눔으로 채웠다.

"이제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



각했죠.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물건을 덜 구매하고 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고 오래 쓰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싶었어요.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한걸음 가게는 '고쳐 쓰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시내 한 복판인 충장로에 문을 연 것은 다른 곳들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곳, 물품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는 곳을 표방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바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 하나와 실천이 모여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고 서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팩을 모으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종이팩이 화장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갖고 시작한 게 출발이었다. '이게 뭐냐?'라는 의문은 '이게 되네'라는 탄성으로 바뀌었고 자신감을 얻었다. 외국여행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을 발견하고선 언젠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걸음 가게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열릴 때만 문을 열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우산 수선, 삶과 연계된 바느질 등 다양한 수선워크숍과 강연, 다채로운 주제로 열리는 수다회, 작은 축제 등이 이곳에서 펼쳐졌다.

한걸음 가게는 주 3회 오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주 목~토요일(오전 11시~오후 7시) 문을 열며 워크숍, 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는 인스타그램에 공지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물건만 사거나 공간을 구경하고 가도 되고 1일 이용권(5000원)을 구입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해 자율음료대를 이용하며 편하게 머물다 가도 좋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류 교환파티에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유어스텝 7월 5~6일 진행
아이폰 배터리 교환·우산수리 워크숍도

광주일보사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은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해 보는 '쓸모의 시간'을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 순환 실험실을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한걸음 가게에서 진행한다.

'쓸모의 시간'은 딱딱한 프로그램 대신 의류 교환 파티, 아이폰 배터리 교환 등 리페어워크숍, 자원순환축제, 관련 토론회 등 재미있게 즐기며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호우호우'가 진행하는 우산수리 워크숍이다. 집에서 망가진 우산을 가져와도 되며 한걸음가게에서 수거해둔 우산을 수리한 후 구입할 수도 있다.

6일 오후에는 '의류교환 파티'가 열린다. '21% 파티'를 주관해온 다시입다연구소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의류 교환 파티'에서는 안 입는 옷을 가져와서 마음에 드는 다른 옷으로 바꿔가면 된다. 이날 파티에서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수리상점 점수 진행)도 진행한다.

또 13일(오전 10시)에는 '채소의 계절 먹거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두번째 '의류교환파티'는 오는 9월 28일 '자원순환축제'와 결합해 열린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 일회용품 없는 팝업 가게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 세번째 파티는 11월 중 열릴 계획이다.

그밖에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영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김지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집담회도 10월 하순께 개최한다. 수리권은 어떤 물건이든 처음부터 소비자가 고쳐 쓰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한걸음 가게에서 열린 '의류교환파티' 행사 모습.

(한걸음 가게 제공)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상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